

주거가 안정되면 삶도 바뀝니다



경기도 부천의 동광임파워먼트센터는 아산재단의 '정신장애인 및 사회적 고립계층 지원사업'에 참여해 사회적으로 배제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고용·문화 맞춤형 서비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동광임파워먼트센터 김장배 센터장(왼쪽 첫번째)과 직원들.

“저희의 모든 활동은 정신질환자의 평범한 삶을 위한 노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평범은 일상이고 지루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정신장애인들에게는 그 평범함이 너무나도 갖고 싶은 간절한 것이거든요.”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동광임파워먼트센터는 1998년 설립되어 2006년 세상의빛 동광교회가 운영을 맡고 지금까지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책임져왔다. 다양한 정신장애인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본 동광임파워먼트센터는 주거환경이 정신장애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산재단의 '정신장애인 및 사회적 고립계층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서진영 동광임파워먼트센터 팀장은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대상자를 지켜보며 주거가 정말 중

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고 말한다. “여인숙이나 고시원, 모텔에서 생활하며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겪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조리도구가 없으니까 편의점 도시락으로 식사를 때워야 하고, 필요한 물건도 거의 갖추지 못한 채 잠만 잘 수 있는 환경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자기 공간을 갖게 되니 스스로 집안을 꾸미고, 대인관계도 좋아지며 삶의 의욕을 찾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핵심인 주거에서 시작해서 문화예술, 고용까지 이어지는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주거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된 삶의 의욕

동광임파워먼트센터는 우선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대상



제빵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김장배 센터장(왼쪽 첫 번째)과 정신장애인 회원들.

자를 면담한 후 대상자의 집을 일일이 방문했다.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대상자는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지만 의외의 경우도 적지 않았다. 서류상으로는 번듯한 집과 가족도 있었지만 정작 대상자의 방은 손댈 수 없을 만큼 엉망인 경우도 있었다. 또 멋진 옷과 화려한 액세서리를 했지만 집은 벌레가 가득했다. 가정방문으로 정확한 상태가 파악되면 지자체의 주거지원 서비스와 연결해 거주할 곳을 마련해주고, 직원들과 정신장애인 당사자인 동료지원 활동가들이 직접 청소와 인테리어를 진행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은 반드시 대상자가 직접 모델, 색상, 업체 등을 고르고 선택하도록 해서 만족도를 높였다.


“인력이 부족해서 청소를 도와줄 동료지원 활동가를 모집했어요. 우리집 청소를 도와줬다는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 회원들끼리 교류도 훨씬 잘 되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며 청소팀을 자원하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조강현 사회복지사는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날 만큼 힘든 집도 있었지만, 대상자가 고마워하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고 말한다.

물론 모든 사례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열심히 지원을 해도 갑작스러운 재발에는 속수무책이었다. 환청이 들려 이웃 주민과 싸운 후 임대주택을 포기한 대상자도 있었고, 적응을 잘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정신병원 격

리병동에 입원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중도 탈락 대상자를 제외하고도 1년 간 모두 32가구가 동광임파워먼트센터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 직업까지 연결하는 통합 서비스

1년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자 대상자들의 변화가 서서히 드러났다. “면담을 할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던 분들이 귀 기울여 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되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거환경이 좋아지니까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2차년도부터는 커피, 베이킹, 포토, 에세이 등 네 개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조강현 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원과 동료지원 활동가가 직접 각 분야를 배워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말한다. 또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에 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고, 지자체, 기관과 연계해 회원들의 사진, 그림 등을 설치·구독하는 서비스와 정서지원을 위한 AI로봇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서진영 팀장은 “향후 동료지원 활동가가 회원들을 돕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직업과 연결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포부를 밝혔다.  글 편집부



동광임파워먼트센터 직원과 정신장애인인 동료지원 활동가가 정신장애인의 집을 정리하고 있다.